

KIA 사전에 포기란 없다



26일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투수 박준표(앞쪽) 등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전반기 8위 마감... '절치부심' 후반기 재도약 다짐
울스타브레이크 기간에도 투수·야수 전열 정비
내일부터 후반기 일정 돌입...두산전 원정으로 포문

'호랑이 군단'이 후반기 전진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울스타브레이크를 보냈던 KBO리그가 26일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KIA 타이거즈는 26일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중위권 도약을 노리게 된다. KIA는 39승 1무 54패(승률 0.419), 8위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기대에 한참 부족한 성적이었다. KIA는 잠실과 문학으로 이어지는 원정 6연전

을 통해서 전반기의 아쉬움을 털고 반전을 꿈꾸게 된다. 후반기 전진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18일 전반기 최종전을 치렀던 KIA는 19-20일 이틀간의 휴식을 보냈다. 21-22일 훈련을 소화한 KIA는 23일 다시 하루 쉬 뒤, 24일 후반기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챔피언스필드에서 워밍업에 나선 선수들은 캐치볼에 이어 PFP(Pitcher Fielding Practice) 훈련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양현종을 필두로 홍건희, 이준영 등이 마운드에

올랐다. 라이브 피칭을 통해 투수들과 야수들 심전 감각을 찾는데 공을 들였다. 올 시즌부터 울스타브레이크가 1주일로 늘어난 만큼 잘 쉬고 돌아온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다. 가족, 친구들과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등 확실하게 재충전을 했다는 게 선수들의 반응이다. 최형우는 "울스타브레이크는 매년 가족들과 놀고, 시즌을 보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특별한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여유롭게 쉬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좋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언급했다. 문경찬은 울스타전 출전으로 다른 선수들 보다는 바쁜 울스타브레이크를 보냈다. 비로 예정보다 하루 늦은 21일 울스타전이 열리면서 주말 휴식을 취하지 못한 문경찬은 바로 22

일 팀에 합류해 훈련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23일 하루 휴식만 취한 셈이다. 하지만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온 만큼 문경찬은 즐거움 마음으로 후반기를 시작할 생각이다. 문경찬은 "울스타전에 출전해서 너무너무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뜰떠서 공을 던졌다. 울스타전에 처음 등판을 했는데 그 경기 분위기가 좋아서 '우와'하면서 던졌다"며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아쉬웠다. 잘 던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돌아왔다. 또 "후반기는 전반기와 똑같이 하자는 생각이야. 다시 재충전했으니까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KIA는 25일 오전 훈련을 한 뒤, 이날 오후 두산 원정을 위해 서울행 버스에 오른다. /글: 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야구 심판 잘 못보면 2부리그 강등

KBO 승강제 강화...연봉 삭감 등 내년부터 적용

KBO리그에 심판 승강제가 강화된다. 오심이 많은 경우 연봉도 깎인다. KBO리그가 24일 "심판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 운영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올 시즌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BO는 심판 승강제를 강화, 매년 시즌 종료 후 실시되는 고과평가를 거쳐 매년 최하

위 1명을 퓨처스리그로 강등시킨다. 2년 연속 최하위 5명(현행 2년 연속 최하위 3명 포함 시 퓨처스리그 강등)에 포함될 경우에도 퓨처스리그로 강등된다. 평가는 경기운영위원 등의 인적 평가 40%, 스트라이크존의 일관성, 판정 반복 등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 평가 60%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인적 평가와 데이터 평가 비율이 6대 4였다. 데이터 평

가에 더 높은 배점을 주기로 했다. 강화된 심판 승강제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퓨처스리그 강등에 따른 연봉 감액도 추가로 이뤄진다. KBO 심판으로서 리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빈번한 오심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퓨처스리그 강등 및 감액 대상이 된다. 또 비디오판독센터에 배정된 심판이 오독을 할 경우 고과평가 감점을 강화하고, 고과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20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심판의 경우 해당 연도 포스트시즌 경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심판 조직은 현행 5개 팀에서 내년 6개 팀으로 확대한다. 기존 3심제로 운영되던 퓨처스리그도

전 경기 4심제로 바뀐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퓨처스리그 심판육성위원회도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 심판에 대한 KBO의 교육과 지원도 강화된다.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심판 교육에 MLB 심판 수퍼바이저 등 해외 심판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시즌 개막 전 야구규칙과 리그규정의 정확한 숙지를 위해 심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는 고과평가에 반영한다. KBO는 국제심판회의나 MLB 심판 미팅 참가, 심판학교 파견과 함께 심리상담 등을 통한 치료와 정신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27살, 승리에 항상 배고프다"

토트넘, 오늘 중국 상하이 인터내셔널 챔스컵 맨유와 대결

"아시아 선수로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뛰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손흥민(27·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25일 중국 상하이 흥커우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2019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ICC) 2차전을 앞두고 "항상 배가 고프다"라며

더 발전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손흥민은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9 ICC 공식 인터뷰에 참석해 "아시아에 오는 것은 항상 나에게 환상적인 경험이다. 빨리 경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토트넘을 대

표해서 기자회견에 나선 손흥민은 '한국 팬들이 세계적인 선수라고 칭찬하는 데 어떤 느낌이 드나'라는 질문에 "과찬이다. 지금 내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항상 기쁘다고 말한다"라며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 그렇다고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현재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선수로서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잠시 뜸을 들였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27살이다. 아직 어리고 해야 할 것도 많다"라며 "주변에는 나보다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선수들도 있다. 그들 모두 항상 배가

고프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이 선수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역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항상 허기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지길 원해야만 한다. 그런 것은 내가 22살이든 27살이든 똑같다"라며 "이번 시즌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목표에 대해선 "지난 시즌 결과는 환상적이었다. 팀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게 이번 시즌 나의 목표"라며 "아시아 출신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뛰는 게 자랑스럽다. 그런 것이 나에게 큰 힘을 준다"고 말했다. /연습뉴스

오승환 돌아오나

ML 콜로라도 방출 대기 명단에

미국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가 24일 한국인 불펜 오승환(37)을 방출 대기(designated for assignment) 처리했다.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서 오승환의 자리를 비우는 절차로, 방출의 직전 단계다. 앞서 버드 블랙 콜로라도 감독은 오승환이 오른쪽 팔꿈치에서 떨어져 나간 뺏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오승환의 시즌 아웃을 선언했다. 오승환과 콜로라도의 계약은 올해로 만료된다.



방출 대기 신분인 선수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승환은 지난 비시즌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친 바 있어서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오승환은 팔꿈치 수술도 한국에서 받을 예정이 다. 오승환은 2016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최대 11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2018년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1년 최대 750만 달러에 계약한 뒤 7월 콜로라도로 트레이드돼 올해까지 뛰었다.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통산 232경기에서 225.2이닝 동안 16승 13패 42세이브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올해는 21경기 3승 1패 평균자책점 9.33으로 부진했다.

오승환이 KBO리그로 돌아온다면, 삼성과 계약해야 한다. 삼성은 오승환의 해외 진출을 허락하면서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오승환이 다른 팀에서 뛰려면 삼성이 보유권을 풀어줘야 한다. 오승환은 과거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어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 정지 징계' 처분도 받아야 한다. /연습뉴스

광주 FC '스피드 업'

최전방 공격수 최호주 영입

프로축구 광주 FC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공격수 최호주(27)를 영입했다. 최호주는 포항스틸러스, 안산그리너스 등에서 활약한 프로 5년 차로 186cm·78kg의 탄탄한 체격을 바탕으로 한 위치선정과 포스트 플레이, 침투력이 강점인 최전방 공격수다.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다.



U-19, U-23 대표팀 훈련에 참여했던 그는 2014년 모교인 단국대를 전국체전 우승과 왕중왕전 준우승(4골·우수선수상)으로 이끌었다. 당시 슈틸리케 감독이 이끌었던 성인대표팀 아시아안 컵 대비 전지훈련에도 참여했다. 대학 무대를 평정하고 2015년 포항에 입단한 그는 곧바로 용인시청으로 임대를 떠났고, 이듬해 코치로 부임한 박진섭 광주 감독과 인연을 맺고 포항에서 13경기를 소화했다. 이후 강릉시청을 거쳐 지난 시즌 안산에 합류했으며 37경기 8골 2도움을 기록했다. 박진섭 감독은 "최호주는 위치선정, 연계플레이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공격수"라며 "광주의 전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호주는 "광주는 1위 팀 다음 끈끈한 조직력과 투지를 가진 팀"이라며 "시즌 중반에 합류한 만큼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승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